

현대전 양상에 관한 특징 분석

朴 憲 玉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서 론
- 전쟁양상 분석의 개념
- 주요 현대전쟁의 특징 분석
- 결 론

1. 서 론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전쟁의 양상(modes)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잠시도 쉬지 않고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전쟁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전쟁과 개인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전쟁과 국가는 이에 더하여 번영이나 멸망이냐의 문제이다.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인간이 전쟁보다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로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

따라서 성공한 전쟁뿐만 아니라, 실패한 전쟁에서도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사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것이다.

상고시대에는 식량, 후손을 위한 여자, 농업용 영토 때문에 돌과 몽둥이로 싸움을 했으나 청동기와 철기의 출현으로 창과 칼이라는 무기체계로 전쟁양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B.C 400-A.D 400년경 페르시아전쟁, 카르타고와 로마간 포에니 전쟁 등의 고대전쟁에서는 알렉산더와 한니발, 시저와 같은 전쟁영웅들이 출현했다. 이때부터 전쟁은 이미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작전적, 기술적, 군수적 차원의 전략·전술이 가미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마라톤 전쟁에서는 양익포위 대형으로 승리했고, 그리스는 'Sarissa'라는 적보다 더 긴 14피트 장창으로, 로마군은 'Gladius'라는 양날 검으로 상대를 물리쳤다. 중세의 징기스칸은 고도의 기동력을 구사하는 기마전술과 효과적인 기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했으며 16세기 스페인은 범선을 이용한 해군전술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조선총통, 천자총통 등의 화포로 일본수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산업기술 발달로 대규모의 군수품 생산이 가능했고 시민혁명의 열기를 전쟁에 투입시켜 총력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2차 세계대전은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량피해가 불가피해졌으며 국가간 연합에 의한 국제전쟁의 형식을 곧 잘 취했다.

20세기는 열전과 냉전이 중첩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쟁원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데올로기, 인권, 문화의 충돌 등이 전쟁원인에 추가되었다. 특히 1950년의 한국전쟁은 동·서 양 진영간의 이념대립의 과편지대(shatter zone) 및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그리고 장차 한민족의 진로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가지 체제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전쟁으로 치르게 되었다. 결국 이는 국제전의 성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1,300년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동족간에 3년 동안의 처절한 전쟁을 통해 민

축사를 중단하고 장기분단을 초래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선보였다.

이렇게 보면 전쟁양상은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야망, 과학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 그리고 국가이기주의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전쟁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최근에 있었던 주요전쟁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신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 돌출 된 9·11 테러공격과 그로 인한 아프간 전쟁 및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된 테러지원국가들에 대한 응징 분위기 고조는 확전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래전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분단 57년을 맞고 있는 한반도는 2000년 6·15공동성명 이후 군사적 대결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화해·협력적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왔으나 19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3년만에 북한은 또 다시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사태를 도발하여 남북관계의 경색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마저 지연시키고 있어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가설이 대두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회구하지만 전쟁과 평화는 순환(feedback)하는 것일 뿐,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전쟁은 평화가 파괴된 상태이고 평화는 전쟁을 잠깐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전쟁을 의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전쟁양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서 전쟁의 본질과 원인, 전쟁의 종류, 그리고 전쟁양상 비교기준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20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진 주요 현대전쟁으로서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프전쟁, 코소보전쟁, 그리고 21세기 들어 첫 번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아프간전쟁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내림으로서 국방정책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전쟁양상 분석의 기준으로서 전쟁의 원인과 목적 중심의 정

치적 영역과 무기체계 및 전략·전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영역에 치중 하되 특징적인 것만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모든 군사행동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치와 군사는 상호관계를 이루게 되며 때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승산도 없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군사적 승리를 눈 앞에 두고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종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2. 전쟁양상 분석의 개념

(1) 전쟁의 본질

시대상황 변천에 따라 전쟁의 형식은 달라졌어도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사전적 의미의 전쟁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이러한 전쟁의 개념 속에는 무력이 전쟁수단이라는 특징과 국가의 정신적 물질적 제반역량이 동시에 동원된 투쟁이라는 특성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의한 국가집단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²⁾

1) 국방대학원, 안보관계 용어집(1985), p. 83.

2) 교전단체의 승인은 보국과 승인국가의 재량행위이다. 교전단체 승인요건으로서 ① 한 국가 내에 지방적 성격이 아닌 일반적 성격(general character)의 무력충돌이 존재할 것, ② 반란단체가 국가영역의 상당부분(substantial portion)을 점령하고 있을 것, ③ 교전단체가 법률상의 정부와의 교전행위에 있어서 전쟁법규를 준수하고 또한 책임있는

전쟁의 수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무력의 행사가 전쟁의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의 명시(明示)나 묵시(默示)에 의한 전쟁개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력행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국가가 교전상대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던 실례도 있다.

한편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전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전쟁의 원칙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불확실성의 연속인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승을 회구하는 지휘관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쟁의 탐구와 연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쟁원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과 이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먼저 프랑스의 삭세(Marshall Maurice de Saxe)는 “전쟁은 암흑으로 덮인 과학이다. 모든 과학은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경우만은 없다”³⁾라고 하여 전쟁의 무원칙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미니(A. A. Jomini)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했다. 이 원칙은 불변이며 무기의 종류와 역사적 시간 및 장소와 무관하다”⁴⁾고 반박했다.

물론 전쟁의 원칙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공통적인 면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 동양의 대표적인 병학가 손자(孫子)는 여섯 가지(목표, 주도권, 집중, 기동, 협조, 기습)를 제시했고 서양의 대표적인 병학가 클라우제비츠(K. Von Clausewitz)는 다섯 가지(목표, 주도권, 집중, 절약, 기동)

당국하에서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행동할 것, 김정건, 국제법(박영사, 1990), p. 150.

3) Earl. Edward M(ed.), Makers of Modern Strategy(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43), p. 84.

4) 앞글, p. 85.

를 주장했다. 두 사람의 전쟁원칙 주장에서 무려 네 가지가 일치했으며 오늘날 각 국의 군사교리에 적용되고 있는 전쟁의 원칙도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보면 원칙으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전쟁의 역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 전쟁을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조미니와 클라우제비츠이다. 그러나 우주전 시대에 들어서고 컴퓨터화 된 기술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병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Vom Kriege)⁵⁾이라고 하겠다.

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와 논의들은 주로 전쟁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쟁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우연성(Chance) 등과 같은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전쟁양상과 전장환경을 연구하려는 군인과 학자들이 현 시점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전쟁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전쟁이론은 첫째,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란 명언대로 전쟁을 정치관계의 계속으로 보고, 둘째, 전쟁의 목적은 국가의사의 실현에 있으며, 셋째, 그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인 물리적 강제력은 군사력이며, 넷째, 전쟁목표는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⁶⁾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학설, 인류학적 학설, 사회학적 학설 등으로 다양하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전쟁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았다. 마르크스/레닌 등은 경제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독점자본에 의한 세계 재분할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5)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총 8권 128개 장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전쟁의 본질’, 제2편 ‘전쟁이론’, 제3편 ‘전략일반’, 제4편 ‘전투’, 제5편 ‘군사력’, 제6편 ‘방어’, 제7편 ‘공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장명순, 북한군사연구(팔복원, 1999), p. 89.

한편 헌팅턴은 미래의 전쟁위협은 뿌리깊은 국가간의 가치체계, 즉 문명, 종교,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문명권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구 문명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 문명권의 가치체계, 세계관은 좀처럼 동요하지 않으며 물질적 변화는 그러한 가치체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21세기 출발점에서의 생존법'이란 부제를 붙이고 '지구촌의 경제경쟁은 전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서곡'이라고 하여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 전쟁의 분류

국제법상 전쟁은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법적 전쟁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침략전쟁이라고 한다. 침략전쟁에는 정복전쟁, 공격전쟁,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전쟁 등이 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서 국제법상 자위(自衛)의 전쟁이라고 한다. 이는 유엔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인데 유엔 헌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기타 평화파괴의 진압을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과 평화를 파괴할 우려있는 국제적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및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고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실현하는 것이다(유엔헌장 1장 1조).

전쟁의 종류도 전쟁의 원인만큼이나 다양하다. 특히 전쟁의 분류기준, 즉 목적, 목표, 수단, 지속기간, 규모 및 참여 국가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난다. 전쟁지속 기간에 따라 수 십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단기전쟁과 수년에 이르는 장기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쟁규모에 따라 국지전쟁과 전면전쟁으로 구분되며, 전쟁수단에 따라 재래식 전쟁(통상)과 비재래식 전쟁(화생방 전쟁)으로 나눌 수 있다.⁷⁾

또한 참전국가의 수에 따라 단독전쟁과 동맹국 연합전쟁 또는 다국적 연합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쟁의 성격에 따라 해방전쟁, 응징보복전쟁, 제한전쟁 및 무제한 전쟁, 그리고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정보전쟁 등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전쟁의 개념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면 첫째, 2개국 이상 상호간에 무력대결이라는 견해, 둘째, 부인할 수 없는 국제관계상의 사실적 일면이며 선과 악, 혹은 승자와 패자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대 국가간에 존재하는 역사상 불가분한 충돌이라는 견해, 셋째,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견해, 넷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전국간의 무력충돌을 포함한 상호관계상 하나의 단계 및 상황이라는 견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⁸⁾

전쟁의 시작은 명시적 의사표시인 전쟁선언(declaration of war) 또는 단순히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대행위(hostile acts)에 의해 개시되고 전쟁의 종료는 교전국 간에 체결되는 강화조약,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리고 교전국 상호간에 사실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전쟁은 자국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한 투쟁이다. 즉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등을 운용하여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광의의 전쟁과 군사력으로서 상대방의 군사력 격멸을 목표로 하는 협의의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장명순, 앞글, p. 93.

8) Ma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0(1968), p. 1. 김정건, 국제법(박영사, 1990), p. 613.

이렇게 보면 전쟁의 본질은 정치의 도구이자 수단이며,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할 수 없고 원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예측과 예방을 위한 백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제공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카멜레온(Chameleon)처럼 다양한 양상의 인류적 재앙(災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슬기롭게 분석하고 대처하면 무서운 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조정할 수도 있다.

(3) 전쟁양상 분석기준

전쟁의 양상은 항상 다르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항상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표에 영향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를 위한 전쟁’(War-For-Politics)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전쟁의 승리를 지향하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행위의 기술인 전략(strategy)과 전투의 기술인 전술(tactics)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지속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전쟁양상 변화에서 무기체계(weapon system)의 발달이 크게 작용했다. 현대전에 사용되는 복잡한 무기들은 상호 유기성을 가질 때 효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대포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포술과 포수, 그리고 탄약과 운반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화력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란 “무기와 이에 관련된 인적·물적 요소의 종합체로서 전쟁수행 과정에서 무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재, 시설, 인원, 보급, 그리고 전략전술 및 훈련 등으로 성립되는 전체의 체계”⁹⁾라고

9) 육군본부, 육군군사술어사전(육군본부, 1988), p. 153.

정의할 수 있다.

무기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첨단기술이 무기개발에 도입되었으며, 무기발달과정은 전쟁의 성격과 사용된 무기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1) 제1기: 원시시대로부터 근대적인 화약이 발명될 때까지의 시기. 이 시대의 전투는 전투원인 육체적 힘이 주체가 되고, 무기는 그것을 보완하는 구실을 하는데 불과하였다. 석기·동기·철기·시대를 통해서 돌·구리·철 등으로 만든 칼·창·도끼 등이 근접전투의 공격무기로 사용되었고, 원거리용으로는 투창·노궁(弩弓) 등이 사용되었다. 또 이 시대의 방어무기로는 투구·방패류가 있었다.

(2) 제2기: 화약의 발명으로부터 19세기말까지의 시기. 1331년 B. 슈바르츠에 의해서 흑색화약이 발명되면서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날리는 총포류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총포가 처음 무기로 쓰인 것은 1346년 크레시 전투 때부터였으며, 1496년 선조식(旋條式) 총포가 발명되고, 1845~1846년 후장식(後裝式) 총포가 개발되었다. 185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는 기관총이 등장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지상전투무기는 총포의 발명·개량을 계속하여 19세기초에 근대식 총포가 완성되었다. 해상함정에 있어서는 15세기경에 항양범선(航洋帆船)이 나타났고 여기에 총포가 장착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배수량 1,000t에 180문의 포를 장비한 그레이트 해리(Great Harry)라는 군함을 진수시켰고, 1860년 처음으로 철제를 사용한 선체에, 14kn의 속력을 내는 전함 위리어가 진수되어 근대식 군함의 시조가 되었다.

(3) 제3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말기까지의 시기. 제1·2차 세계대전은 성격이 국가 총력전으로 바뀌고, 전쟁의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무기의 발달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특징이 있다.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비행기와 비행선이 전쟁무기로

10) 육군교육사령부, 무기체계업무편람(1)(육군교육사, 1990), p. 11.

사용되었고, 독가스와 같은 화학무기와 전차·잠수함 등이 등장하여 입체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정밀기계·제강·화학·전기 등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대함거포·자동차량·기관총·무선장비 등이 발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경이적인 무기들이 개발·사용되었다. 전쟁 중에 실용화된 것으로는 레이더·소나 등의 전자무기와 독일에서 개발 사용한 V-2호 미사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쟁양상에서도 대규모의 전략폭격, 함재기의 진보에 따른 항모(航母) 기동부대, 잠수함의 성능향상·전자무기의 발달에 의한 대규모 잠수함전과 對잠수함전, 전차·장갑차량 발달에 의한 항공기와 협동으로 기동뇌격작전(機動雷擊作戰) 등이 있었다.

(4) 제4기: 제2차 세계대전 말 원자폭탄의 출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특징은 전략무기의 출현과 항공기의 급진적인 발달을 들 수 있다. 전쟁양상을 일변시키고 군비와 무기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원자폭탄은 핵분열방식의 것으로부터 핵융합방식의 수소폭탄으로 발전하고, 메가톤 급의 위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형태도 소형·경량화 되었다. 이 밖에도 현대적인 최첨단 과학병기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고 각 국은 신무기 개발경쟁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결국 전쟁양상은 정치상황과 전쟁기술의 발달에 의해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므로 크게 보면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수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3. 주요 현대전쟁의 특징 분석

전쟁사의 단계를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시대구분에 따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고 현대를 다시 세분할 수도 있다. 무기체계에

다른 구분도 가능하며 전략사상에 따라 소모전략, 섬멸전략, 간접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형태에 따라 전격전, 정규전, 비정규전으로, 전쟁동원 양상에 따라 시민전쟁, 제한전, 총력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현대전에 대해서도 1차 세계대전까지를 제1기, 장기휴전의 제2기, 2차 세계대전의 제3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공내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걸프전쟁, 코소보전쟁 등을 제4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아프간 전쟁은 초현대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쟁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무기체계 등을 고려할 때 현대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연구목적상 1950년 한국전쟁부터를 현대전쟁이라고 하겠다. 2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양상을 포괄하는 바탕 위에 인류최초로 핵무기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종전 이후 20세기 중반에 접어드는 이 시점의 세계정세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양극체제로 나뉘어졌고 미·소 양극체제의 큰 테두리 속에서 국제정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치러진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아직도 종전되지 않고 정전의 상태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제2의 6·25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양극체제의 힘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성격과 1950년, 소련도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3차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한전쟁(limited war)이 불가피한 시점이었다.

제한전쟁은 “한 국가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데까지 이르지 않는 전쟁으로서 교전국의 일부 군사력으로 상대국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전쟁”¹¹⁾을 말하는데 전쟁의 지리적, 전쟁목표, 전쟁수단의 제한, 그리고 사용되는 무기체계의 질적, 양적 제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간 전쟁까지의 전쟁양상이 갖는 특

11) R. E. Osgood, 'The Reappraisal of Limited War' in 'Problem of Modern Strategy', Part 1, Adelphi Paper. No. 54(London : IISS), p. 41. 김현기, '제한전쟁의 이론과 실제', 군사논단, 제30호(2002), 한국군사학회, pp. 152-153.

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1)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04:00부터 1953년 7월 27일 22:00까지 약 3년 1개월동안 한반도 전역에 걸쳐 민족사 최대의 동족상잔으로 기록된 6·25남침전쟁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통칭한다. 반세기전의 이 전쟁으로 민족분단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군 3만 7천명이 아직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훈도출이 요망된다.

한국전쟁의 진정한 교훈은 ‘잘못된 전쟁’ 또는 ‘잊어야 할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한 전쟁’, ‘잊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쟁준비 없이 북진통일만을 호언장담하다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되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참전 16개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 당시 북한에 의한 공산화통일이 불발로 그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갖는 양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쟁 목적상의 특징

첫째,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목적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징이다. 우선 전쟁을 일으킨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 전쟁의 목적이었고¹²⁾ 전쟁을 방어한 한국과 미국과 UN은 침략과 평화의 파괴행위를 막

12) 1980년대 소련의 대격변 속에 공개된 한국전쟁관련 문서들은 한국전쟁의 원인과 주동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전쟁의 원인은 주일미군에 위협을 느낀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에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북한을 사주하여 한반도를 석권하겠다는

는 것이 목적이었다. UN은 1950년 6월 25일, 27일, 7월 7일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 행위로 간주하고 어디까지나 평화의 회복을 위해 집단안보체제로서 전쟁에 임했다.

둘째, 정치적 목적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제된 전쟁이라는 특징이다. 즉 제한전쟁을 주장하는 트루만 대통령과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주지역으로까지 전쟁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맥아더 장군간의 상반된 전쟁관의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1951년 4월 11일 맥아더가 해임되고 협상과 전투가 병행하는 느슨한 전투를 통해 38선 부근의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되고 말았다.

미국이 제한전으로 매듭지은 것은 ①소련과의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회피하고, ②중공영토에서 중공과의 전쟁위험을 회피하며, ③유럽침공을 위한 소련의 양동작전을 우려하여 자원절약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모든 전쟁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몽고메리 원수의 주장대로 “전쟁은 정치인이 결심하고 실제 전쟁은 군인이 하며 그 책임은 군인이 진다.”¹³⁾ 모순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셋째, 원상복구가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특징이다. 북한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한국전쟁은 결국 한국군 및 UN군 대 북한군 및 중공군의 다자대결 국면을 조성했다. 전쟁초기에는 공산군의 기습과 전격전으로 약 1개월만에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진출했으나 미국과 UN의 신속한 개입과 45일간의 필사적인 방어전투로 9·15공세이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사용 등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후퇴한 것은 미국과 UN의 참전목적을 평화 파괴행위에 대한 응징과 원상복구에 두었을 뿐 침략군의 괴멸이나 북한정권의 붕괴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세계공산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또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필요 및 미국방위의 한반도 제외 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등이라고 하겠다. Soh, Jin-chull, 'A Review On The Causes Of Korean War In The Light Of New Documents',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2000), p. 9.

13) Bernard Law Montgomery, *A History of Warfare*, 승용조 옮김(책세상, 1995), p. 21.

를 통하여 공산압제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 민주화·자유화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넷째,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족상잔이라는 특징이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분단된 민족국가 중 한반도만이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동족끼리 서로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갈등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이념의 약화현상,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이은 민주화 변혁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만이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자비한 폭압과 철저한 통제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민족공동체보다 이념적 연대를 더 중요시하여 동족에게 총을 쏘는 정당성(legitimacy)이 결여된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군사작전상의 특징

한국전쟁의 군사작전상의 특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4단계로 작전단계를 구분한다. 제1단계는 6·25 전쟁발발로부터 9월 15일까지, 제2단계는 9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3단계는 10월 25일부터 1951년 6월 10일까지, 그리고 제4단계는 6월 11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까지로 분류하고 있다.¹⁴⁾

첫째, 전쟁지도 면의 특징이다. 먼저 북한은 선제공습을 통하여 한국군 동원과 미군의 한반도 증원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는 속전속결로 전한반도를 석권한다는 전략방침아래 전선사령부 예하 제1군단(군단장 김웅, 1·3·4·6사단 배속)을 주공으로 하여 서울을 3일만에 점령하도록 하고 제2군단(군단장 김광협, 2·5·7사단 배속)을 조공으로 하여 역시 3일만에 춘

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백과전서, 제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p. 439-440.

천-홍천-수원을 점령하기 위해 각각 공격을 개시했다. 계획대로 1군단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했으나 2군단은 춘천과 홍천에서 돈좌되어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점령 주공부대가 어이없게도 3일 동안이나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미군의 투입시기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허를 찔러 9월 28일 서울수복, 10월 1일 38선 돌파, 10월 18일 평양점령, 10월 20일 미 제187공수연대 4천명의 숙천, 순천지역 공중강습 허용 등 청천간 선으로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⁵⁾

또한 1950년 12월 21일 만포진 별오리 군사작전회의에서 분석한 북한측의 한국전 양상은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제1단계 ‘승리적 전진시기’, 제2단계 ‘일시적 후퇴시기’, 제3단계 중공군의 지원으로 ‘중국적 승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1단계에서는 예비군부족과 남한지역에서 유생역량 섬멸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비판했으며, 2단계에서는 지휘력 부족으로 질서 있는 후퇴를 하지 못했고 우수한 적의 해·공군력과 맞서는 능력부족, 그리고 산악전투 야간전투에 취약성을 들어낸 점들을 지적했다. 3단계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후방교란 유격전과 신속한 추격전을 지시했다.

한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ntrol)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한(public letters)¹⁶⁾에 의해 UN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연합군의 지휘단 일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로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UN군사령관이 협정체결 일방이 되는 근거가 되었고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

15) 북한군의 한국전 초기 전쟁지도 실패에 물어 제2군단장 김광협을 군단 참모장으로 좌천시키고 2사단, 12사단장을 각각 대좌로 강등시키는 등 엄중한 지휘책임을 물었다. 박현욱, ‘한국전쟁에서의 북한군의 전쟁지도’, 전사, 제3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234.

16)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현 작전상대가 계속되는 동안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게 됨으로서 현재까지도 전시 작전지휘권은 UN군사령관의 정전협정유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CFC)이 행사하고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1981, p. 629.

결당사자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연합작전시 지휘권 단일화를 위해 군대를 가장 많이 파견한 국가의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은 일반화된 관례이다.

둘째, 각 군별 전쟁양상의 특징이다. 먼저 지상전투는 초기에 북한군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남하했으며 한국군은 열악한 전투력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지연전과 낙동강전선 방어작전을 전개하여 UN군의 공세이전을 가능케 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현 전선부근에 고착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기도를 저지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 초기 우리해군은 함정 28척, 해상병력 1,077명, 해병대를 포함한 육상병력 약 7천여 명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서해에서 강화도 경비와 웅진 근해에서 육군 17연대 작전지원, 동해 38선 부근 해상봉쇄작전, PC 701(백두산)함의 부산근해 해전 등을 실시했고 인천상륙 작전에서 한국해군함정 15척 참가, 신의주 앞 바다까지의 서해 제해권 확보 등의 맹활약을 했다.¹⁷⁾

전술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까지 불변의 교훈은 공중우세가 전쟁승패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했다. 공중우세의 획득, 유지는 그 자체가 작전목적이 아니라, 육·해·공군의 제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선결적 필수조건이 된다. 그러나 한국전 당시 한국공군은 경향 공기 22대와 병력 1,897명이 전부였다. 결국 한국전은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 불가피했고 공군은 주로 UN군의 지원으로 증강된 공군전력으로서 공중우세 확보, 후방차단, 근접지원, 공수 작전, 공중정찰작전 임무 등을 수행했다. 한국전쟁에서 항공전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로 제트기에 의한 공중전 수행이었다. 압록강 남쪽 적지 상공에서 수행된 미공군의 F-86(Sabre)과 북한의 최신예기인 MIG-15의 공중전에서 미공군이 15:1의 우세를 보였으며, 이는 동일한 성능의 제트기에 의한 전투에서 무기체계와 조종사 기량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한국전은 항공기 개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17) 김일상, 「한국전쟁시 해군의 주요 해상전투」, 군사논단, 제19호(1999), pp. 50-51.

항공력의 정확한 이해와 운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인지시켰으며, 북한은 공군력에 의한 참패로 인해 현재까지 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2)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8년 동안 프랑스군과 베트남 간에 전개했던 민족해방전쟁 성격의 독립전쟁과,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의 베트남과의 전쟁을 총칭하나 여기에서는 베트남 및 월맹군 對 월남 및 미국·한국 등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루기로 하겠다.

베트남은 1945년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 같은 해 9월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1946년에서 1954년까지 베트남(베트남 독립동맹)군과 전쟁을 전개하였으나 1954년 5월 프랑스군의 거점인 ‘디엔 비엔 푸’의 함락으로 같은 해 7월 휴전을 위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의 내용은 북위 17°선을 잠정적 군사경계선으로 정하고,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1955년 남베트남에 고 딘디엠 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반대하는 공산분자들은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고, 1960년 12월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란 이른바 ‘베트공’을 결성하고 게릴라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¹⁸⁾

이들은 또한 호치민(胡志明)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18) ‘민족해방전선’의 출발은 1954년 사이공에서 좌경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를 이념적 중심으로 시작했다. 활동방법도 평화적인 시위와 법에 대한 호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1957년 이후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폭력을 병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공산주의자들이 동참함으로써 공산화 혁명운동으로 정착되었다. 眞保潤一郎, 베트남 현대사, 조성을 역(미래사, 1986), p. 187.

원조를 받아 세력을 확장하였고, 선거를 통해 베트남 전역을 장악할 수 없게 된 공산측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정규군을 파견, 베트남에서 '특수전'을 전개했는데 이는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가져온다는 견지에서 취해진 미국의 對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어 존슨 행정부는 1964년의 통킹만 사건(미국 구축함에 대한 북베트남의 어뢰정 공격)이 촉발요인이 되어 미군을 직접 전투에 참가시켰다. 1965년에는 북폭(北爆)을 개시하였으며, 1968년까지는 미국지상군의 투입도 54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전비 또한 54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1968년 5월부터 평화교섭을 위한 '파리회담'이 계속되었으나, 전황은 캄보디아(1970)·라오스(1971)로 확대되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타이·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뉴질랜드 등 우방국이 참전하였으나,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열대 밀림지대에서의 군사작전 제한과 베트남 주민들의 비협조, 미국의 반전분위기 고조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남베트남·북베트남·베트남 남부공화임시혁명정부의 4자간에 체결되었다. 협정은 ① 미군의 철수, ② 전쟁포로의 송환, ③ 현상태로의 정전, ④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임시혁명 정부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⑤ 정치범의 석방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남부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 말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을 적화 통일하는데 성공하고 남베트남은 우방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베트남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으로, 인적 희생도 커서 사망자 약 120만 명, 부상자 약 300만~400만 명에 달하였다. 베트남전쟁은 동남 아시아의 정치상황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론놀 정권과 크메르 루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1975년 4월 프놈펜이 크메

르 루주 군에게 장악됨으로써 공산화되었고, 북베트남의 전쟁물자 공급로였던 라오스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에 영향을 받아 1975년 5월에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이러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적화는 아세안 5개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었고, 이에 따라 중립을 표방해 온 아세안은 각국의 경제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장기구 조직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공산세력의 승리로 끝난 베트남전쟁은 남베트남 내전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북베트남이 개입함으로써 확대된 경우로서 전쟁에서 나타난 결과론적 특징으로는 세계최대 강국인 미국이 직접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이 패전하여 멸망했다는 점이다. 즉 전쟁의 성패가 군사력의 우열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반외세 민족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 전략과 게릴라 전술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쟁관은 특이하다. 마르크스는 “봉기는 전쟁의 기술이다. 적을 기습하라”는 혁명전략의 법칙을 제시했고, 레닌은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선진계급들의 전쟁과 반동계급들의 전쟁, 민족적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한 전쟁과 이 억압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쟁이 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레닌의 계급투쟁 불가피론은 아시아 후진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좋은 구실이 되었다. 북베트남도 바로 이점을 이용하여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복합적 전략 전술을 구사했다. 즉 명분을 위한 전술로는 평화, 민주, 민족 등의 구호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남베트남의 체제 모순을 선전하였으며 실리추구 전술로는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게릴라전과 정규전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한 점과 고도의 협상전략을 동시에 구사한 것이다.

특히 1964년까지 해방전선이 수행한 게릴라 활동은 남베트남사회 주민들의 반정부적 성향을 이용하여 정부의 통제능력이 비교적 약한 지방을 대상

19) 장명순, 앞글, p. 99.

으로 추진되었다.²⁰⁾ 따라서 주월 한국군도 군사작전 30%, 민사작전 70%를 강조하기에 이르렀으나 주간에는 남베트남 주민행세를 하고 야간에는 베트공에게 협조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결국 공산주의 세력은 남베트남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게 됨으로서 게릴라전투와 대규모의 정규전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전략이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제한전의 특징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미국은 한국전쟁처럼 군사적 목표 제한, 사용무기의 제한, 군사력 사용의 제한을 두는 전쟁을 수행했다. 즉, 중공 또는 소련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17도선 이북의 월맹에 대한 지상공격을 제한하고 그 이남에서만 지상작전을 실시하며, 이북에 대해서는 해·공군작전만 실시했다. 또한 미군은 라오스·캄보디아의 국경선을 넘는 지상공격도 제한함으로써 월맹군은 그 지역을 연하여 개설된 호지명 루트를 통해 베트공과의 연락 및 보급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월맹군과 베트공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를 벌였다. 미군은 월남군 및 연합군(한국군, 호주군, 태국군, 뉴질랜드 군 등)과 130만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했으나, 베트공을 상대로 하는 소모전만 벌였다. 본래 비정규전에서는 일정한 전장이나 전선이 따로 없이 전투가 전개되기 때문에 먼저 적 후방기지를 제거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적 지하조직이나 후방기지를 제거하지 않고 적 주력을 소탕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는 물론 미국의 월남전 개입목표가 국제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하고 공산월맹에 의한 침략을 저지하는데 두었기 때문이다.²¹⁾

20) 1964년까지 남베트남 농촌의 3/2에 달하는 마을이 공산화되었다. Douglas Pike, *History of Vietnamese Communism, 1926-1976*, Stanford Cal.: Hoover Institution Press, 녹두편집부 역,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녹두:1985), p. 172.

21) 유재갑, *현대전의 유형과 전략*(국방대학원, 1989), pp. 84-86.

셋째, 전략전술 면의 특징이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전술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전략적으로 실패함으로써 결국 전쟁에 패배하는 결과가 되었다. 패배의 원인으로는 ① 전쟁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시종일관 점진적 전략을 구사했으며 최소의 희생을 통한 협상의사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전략적 기습효과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② 독립월남 재건 및 對게릴라전을 제1임무로 하고, 월맹의 격퇴를 제2차 임무로 하여 항공전력을 對게릴라 지원작전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항공전략 운용상의 차질을 초래했고, ③ 남베트남 측의 전쟁수행을 위한 정신력의 결핍과 폭격의 제한구역을 설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군부는 월맹의 전쟁의지를 꺾는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을 중용한 반면, 정계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월맹이 회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교술의 한 형태로 취급함으로써 군부의 강력한 전쟁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결정적인 패인은 최종목표를 '전쟁승리'에 두지 않고 '회담 성사'에 둔 오류에 있었다. 중공군의 개입 및 확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 군사요충지를 '적 영토내의 성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적에게 대응할 여유를 제공한 것이다.

넷째, 지휘·통제체계의 분산으로 항공전력의 효율적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월남 전역내는 주월 미군사 지원사에 의해, 월남 전역외의 월맹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 지역은 태평양 지역 사령부가 각각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월맹 및 라오스 일부 지역의 항공작전권은 7공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었으나 B-52 항공기에 대한 지휘권은 전략공군사령부에 의해 나누어 지휘 및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현장 지휘관으로 하여금 항공력 운용상 융통성의 결여와 대상목표에 대한 적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의 몇 가지 원인은 전쟁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적 지지와 미온적인 국내여론으로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미국은 월맹과 베트공이 협상교섭에 응해 올 만큼 제한적인 전투를 했으며 임시적인 휴전과 속전, 폭격중단과 폭격재개의 카드를 반복

적으로 사용했다.²²⁾

(3) 걸프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侵奪)이 계기가 되어, 1991년 1월 17일~2월 28일까지 미국·영국·프랑스 등 33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개한 전쟁이다.

전쟁발발과정은 쿠웨이트가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라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한 바 있는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 점령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속주(屬州)로 삼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라크의 침공 직후 쿠웨이트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피신하여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각국은 8월 2일부터 12개월에 이르는 對 이라크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쿠웨이트 철수와 쿠웨이트 왕정복고, 對 이라크 무역제재 등의 강력한 이라크 응징을 결의하였다.

UN안보이사회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의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전후하여 미국이 對 이라크 전에 대비한 다국적군의 결성을 주도함으로써 43만의 미군을 포함한 33개국의 다국적군 68만명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에 대해 이라크도 50여 만의 정규군과 50여 만의 예비군을 동원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정예 공화국 수비대 15만을 쿠웨이트 및 이라크 남부 지역에 집중시켜 대치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의 철수시한 이틀 뒤인 91년 1월 17일 대공습을 단행하여 이로부터 1개월간 10만여 회에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 이라크의 주요시설

22) 구정명절 및 크리스마스 휴일에는 전쟁을 중지하기도 했다. 김현기, 앞글, p. 163.

을 대부분 파괴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전면 지상작전을 전개,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 군을 축출한 뒤 지상전 개시 100시간 만인 2월 28일 전쟁종식을 선언했다. 이라크 군은 42개 사단 중 41개 사단이 무력화되고 15만 명의 사망자를 낸 끝에 패퇴하였으며, 미군 333명이 전사하고 21명이 포로가 되었다.²³⁾

결프전의 결과로 중동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한국은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분담하고 군 의료진 200명, 수송기 5대를 파견함으로써 33개 다국적군의 일원이 된 것이다. 결프전의 전쟁양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의 결의로 이루어진 집단안보 조치라는 특징이다. 1990년 8월 1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UN 안보리는 결의안 제660호를 통해 침략을 비난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즉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파괴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군대는 1990년 8월 1일의 위치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그 이후 UN은 이라크에게 최후통첩과 더불어 약 45일간의 유예기간까지 할애하면서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제678호(1990. 11. 29)를 채택하여 공격의 명분을 만들었다.²⁴⁾

결국 결프전쟁은 소련 붕괴와 탈냉전이후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응징함에 있어서 미국 단독의 군사행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UN이라고 하는 집단안보기구와 대규모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처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23) 결프전쟁에서 미군은 총 333명의 전사자를 냈다. 이를 각 군별로 보면 육군 175명, 해군 56명, 공군 35명, 해병대 67명이고 계급분포는 영관장교 18명, 위관장교 40명, 준사관 11명, 하사관 90명, 일반병 169명, 기타 5명이다. 국방군사연구소, 미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결프전쟁, 1993, pp. 1-2.

24) UN 안보리는 '만약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UN 회원국은 이전의 결의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찬성 12, 반대 1, 기권 3). 국방군사연구소, 앞글, p. 5.

둘째, 첨단 하이테크전쟁이라는 특징이다. 걸프전은 처음부터 첨단장비의 전시장이었다. 미 제82공정사단 요원들이 31시간만에 본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개하는 놀라운 수송능력을 선보였다. 걸프전쟁은 인류가 치러낸 전쟁 중에서 가장 값비싼 무기와 최첨단 과학장비가 동원되었고, 또한 최선에 첨단장비의 시험평가장이 되었다. 다국적군은 정찰위성과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표적탐지 레이더시스템(JSTARS) 등의 조기경보 및 전자전(EW) 장비로 가장 효율적인 작전을 실시해 이라크의 지휘통제·통신 시설을 마비시켜 실시간 정보와 표적을 획득 제공하여 줌으로써 이라크 군을 무력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라크 군은 각종 재래식 대공포를 빈틈없이 배치한 다음 수 천 발의 포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반면, 다국적군은 센서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추적하는 첨단무기로 1,000km 밖에서 도심을 공격했다. 즉, 한쪽은 사람이 일일이 표적을 눈으로 보고 조준해서 사격하는 방식으로 싸웠다면 다른 한쪽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싸운 것이다. 미군은 수 십만 개의 컴퓨터로 연결된 C³I를 배치해 지휘통제는 물론 일상적인 보급품 조달까지 전산 처리함으로써 총포보다 컴퓨터에 의한 승리를 거두었다.

셋째, 한정된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된 제한전쟁이라는 특징이다. 1991년 1월 16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쿠웨이트에 적법한 정부가 정상한 장소에 회복되고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²⁵⁾라고 하여 표면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UN이 정한 최후통첩시간이 지난 지 24시간도 채 안되어서 공격을 단행했다. 미국이 이끈 한 달 남짓 계속된 파괴적인 공중전에 의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쿠웨이트

25)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권제 상·김동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서울: 자작아카데미, 1995), p. 189.

해방에 성공했다. 이에 장갑부대 및 공수 보병대들의 대규모 쿠웨이트-이라크 침공이 뒤따랐다. 연합군은 100시간 밖에 계속되지 않은 지상전에서, 우월한 속도, 기동성, 화력 등으로 이라크 군을 압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했지만, 승리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권좌에 머물러 있었으며, 전쟁 발발 후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회교 시아파 신도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라크인들이 고의로 방화하여 불타고 있는 수 백 개의 유전들은 1991년 11월에 이르러서 소화작업이 끝났다. 후세인 정권은 또한 UN 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나 핵 시설과 화학 무기가 포함된 이라크의 대량 파괴무기의 소재 확인 및 파괴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유엔 사찰단원들을 방해하려고 꾀했다.

물론 걸프전 10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전쟁의 목적인 사담 후세인의 제거는 아직도 미완성이며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축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돼야 세계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진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미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천명한바있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²⁶⁾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對 이라크 군사공격 방침을 정하고 개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코소보전쟁

1999년 3월 23일, 나토군의 코소보 전개 허용요구를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이 거절하자, 나토 사무총장 솔라나는 나토군의 공습을 허용하였다. 3월 24일 나토군이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로 코소보 내의 비행장 군사

26) 세계일보, 2002. 7. 9일자.

기지, 무기공장, 통신·지휘소 및 저장소 등을 타격 함으로써 작전이 개시되었으며 6월 9일 나토와 유고가 코소보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6월 10일부터 세르비아군의 철수가 시작되고 나토군의 폭격은 중지되었다. 이후 6월 20일부로 나토가 공식적으로 전쟁종결을 선언함으로써, 공중공격 78일을 포함한 3개월간의 코소보 전쟁은 끝이 났다.

코소보 전쟁은 사상 최초로 지상군 투입 없이 공군력만 사용하여 승리한 ‘특이한 전쟁’(war of extremes)이다. 또한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전술·작전적인 제반 원칙을 압도하였던 전쟁이기도 하였다. 즉, 나토의 정치권은 공격 벽두부터 엄격한 행동수칙을 작성하여 군사작전을 제약하였다. 가장 현저한 실례로서 처음부터 지상군으로 코소보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발표였는데, 이는 밀로세비치가 나토의 결속이 해체되기를 바라면서 공중폭격을 참고 기다리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코소보 전쟁의 분야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무기의 실험장이라는 특성이다. 새로운 전쟁에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등장하게 마련이다. 코소보 전쟁에서도 미 공군의 최첨단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항공작전 첫날부터 투입하였고 폭격에는 신무기인 유도폭탄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 사용되었다. 1997년에 실용화된 JDAM은 스마트폭탄 즉 레이저유도의 Pave Way 계열 및 TV유도의 GBU-15 등을 대신하는 유도폭탄으로, ‘Joint’라는 명칭대로 공군 및 해군(해병대) 공용무기이다. 최대특징은 위성측지항법시스템(GPS)을 유도에 이용하는 것인데, 폭탄은 낙하하면서 GPS로 자신의 3차원 위치를 파악, 투하 전에 입력한 목표의 위치좌표에 공기역학적 날개(fin)로 방향을 잡는다. 20여 km에 있는 목표에 시험 발사한 결과 공산오차가 9.6m일 정도로 정밀한 폭탄이다.

또 다른 합동무기로서 JSOW(Joint Stand-Off Weapon) 폭탄이 사용되었다. 이는 무동력 활강폭탄으로서 접혀져 있던 날개가 퍼지면서 활공,

GPS와 관성항법시스템으로 겨냥한 목표까지 비행하는 폭탄이다. 이 밖에도 토마호크 등 순항미사일로 전략표적인 유고의 정유능력 및 민·군 연료 예비량의 약 절반을 파괴했다. 시험 장비 중에는 현대식 무인정찰기 Pioneer를 취역시켰는데,²⁷⁾ 걸프전, 보스니아 및 코소보에서 사용된 신형 첨단무인기인 Hunter와 Predator의 보조역을 수행하게 했다.

둘째, 항공력 위주의 전쟁에 대한 실험적 특징이다. 코소보 전쟁에서 항공력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차전에서도 항공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나토 통계는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37,465소티를 출격했는데 이는 일일 평균 486소티에 해당한다. 1단계작전 7일 동안에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방공망, 비행기지 등 통합방공체계를 타격했으며 2단계 19일 동안에는 유고군 고립에 중점을 두고 수송체계, 코소보 내 유고군, C³시설 등을 맹타했다. 3단계 52일은 유고군 격멸에 중점을 두고 유고 지상군과 국가 기반시설을 공격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공중공격이 남긴 문제점도 적지 않다.

① 지상목표에 대한 위장과 기만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연합군이 발사한 3,000발의 유도무기 중 500대의 모의장비를 명중시켰는데 첩보에 대해 미 국방차관 John Hamre는 가용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고, 30건의 부수 피해 사건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였다.²⁹⁾ 아무튼 세르비아군이 위장과 기만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과는 훨씬 적었던 것 같다. 이는 정찰 및 표적처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다. ② 지하표적 공격에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지하에 은폐된 표적의 탐지기술과 목표명중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27) 무인정찰기 Pioneer는 185km 이내의 거리에서 운용된다. 비디오 카메라와 적외선 장비를 장착하고 비행시간은 5시간이다.

28) 공군본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항공전역 분석', 1999.

29) David A. Fulghum, "Pentagon Dissecting Kosovo Combat Data",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July 26, 1999, pp. 68-71.

폭탄의 개발 등 아직도 공중공격으로 지상목표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교훈이다. ③오폭 및 부수피해 문제이다. 5월 7일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국제문제가 되었다. 또한 민간인과 어린이 사상자도 속출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아무리 ‘하이테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목표선정의 오류가 있거나 목표확인 오류, 조준의 이탈, 유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피난민을 앞세운 ‘인간방패’ 전술까지 등장했으니 전쟁의 양상은 변화무쌍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도 현대적 전자통신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전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토는 코소보 작전에서 모든 종류의 정보작전(IO) 무기를 사용했다. 주민들로부터 전력(電力)을 박탈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흑연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유고정부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다. 또한 심리전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전단으로부터, 방송은 물론이고 전략적 가치라고는 거의 없는 웹사이트에 대한살포와 심리전 방송에 운용하였다. 해킹까지 광범위한 심리전을 수행했다.

전쟁의 목적이 지역내 전주민들을 섬멸하는데 두지 않는 한 민사심리전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교훈도 얻었다. 따라서 나토는 작전적·전술적 수준의 심리전을 위해 EC-130E ‘Commando Solo’를 발칸 전역에서 약 80회 재공급을 받도록 하면서 對 주민 선무에 최대한 활용했다.³⁰⁾

넷째, ‘인도주의전쟁’(humanitarian war)의 대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특징이다. 지금까지 인도주의를 구실로 한 국제사회의 간섭은 주로 유엔이

30) 공중 라디오 및 컬러TV 방송국인 Commando Solo는 전세계의 분쟁지역 및 자연재해 지역으로 비행하여 표적 청중에 특별한 효과를 주기 위해 설계된 TV, 단파 및 AM/FM 라디오를 방송하며 통상 5명의 승무원을 포함 11명이 탑승한다. 전단의 주요 내용은 밀로세비치의 인종청소 정책 비난 및 영토상실 등 실정 부각, 유고의 전쟁지속능력 상실 강조, 유고군의 탈영 및 코소보 철수 종용, 나토 지상군의 투입 암시, ‘동맹의 소리’ 라디오방송 안내 등이었다.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이라는 형태로 실시된 비무력적 간섭이었으나,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형태인 무력사용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무력에 의한 국제적인 개입을 일각에서 ‘인도주의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전쟁이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³¹⁾

결국 코소보전쟁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인종청소, 인권문제로 나토와 유엔의 집단제제를 받은 공군작전 위주의 새로운 전쟁양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쟁양상 면에서 새로운 교훈을 많이 남겼으며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인권탄압과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과 같은 인권 열악국가에 대해 장차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시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한 밀로세비치와 같은 국가지도자가 국수주의(國粹主義)적인 민족주의에 몰입하거나 국제사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만용을 부리게 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참혹한 만행으로 꼽히는 이 전쟁에서 20만명이 숨지고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위대한 세르비아’ 건설을 슬로진으로 내걸어 1989년 권력을 잡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무자비한 인종 청소의 최고 책임자로 낙인찍혔으며 지금 전범재판소에 서있다. 무려 66개 범죄항목이 따라붙은 밀로세비치에겐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 아프간전쟁

2001년 9월 11일 전대미문의 미국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자위권 발동 차

31) 문광진,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전쟁양상:인도주의 전쟁’, 국방논집, 제46호(한국국방연구원, 1999).

원에서 빈 라덴 비호세력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해 보복 공격으로 대응한 신종 국제무력분쟁이 아프간 전쟁이다. 테러참사 직후 미국은 반문명적 전쟁범죄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탈레반 측은 이를 거부하고 대미 결사항전 결의하자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본격 개전되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부군과 북부동맹 반군간의 내전과 미국-아프간 전쟁이라는 두 가지 성격의 무력분쟁이 병존하는 전장이 형성되었으나 미국의 공습과 특수부대 활동, 그리고 국제적 지원을 받는 반군의 지상공격 앞에 무력화되고 잔당 소탕에 돌입해 있다.

1) 전쟁원인과 목적상의 특징

첫째, 전쟁 원인상의 특징이다. 물론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9·11 테러참사가 전쟁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이 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Ismael)의 후손과 이삭(Isaac) 후손간의 민족분쟁이며 코란(Koran)을 신봉하는 이슬람 종교와 바이블(Bible)을 신봉하는 기독교의 대결이자 서구문명과 아랍문명간의 충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드(聖戰)’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둘째, 전쟁 목적상의 특징이다. 직접적인 타격 목표는 물론 이슬람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테러세력을 지원하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러시아의 앞마당이자 중국의 뒤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아프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 명분상의 특징이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유엔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160개 국가의 지지를 받으면

서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뉴욕테러참사로 불특정 세계인 3천여 명이 숨졌다는 반인도적 행위에 전세계가 경악하고 반테러 전쟁에 동참한 군사작전 이후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이 나섰다는 점도 특이하다.

또한 UN 안보리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붕괴 이후 '자국민 해결 원칙' 5단계³²⁾ 안을 마련하고 임시 정부 수립, 치안 유지, 인도적 지원, 재건 등 4개 분야의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도 자치능력을 상실한 정권붕괴 이후 국제사회가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2) 전쟁수행 방법상의 특징

첫째, 참전규모상의 특징이다. 미국의 응징보복 작전에는 미군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호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대규모 참전했다.³³⁾ 이는 참전의 명분이 반인류적, 반문명적 對테러 응징전쟁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32) 아프가니스탄 새 정부수립 5단계 안은 ① 아프가니스탄을 북부와 남부로 나눠 유엔이 각각의 제정과 모임을 주선한 뒤 남북 전체 회의 소집 ② 남·북부 각 60명씩 120명으로 임시 평의회(과도 정부) 구성 ③ 임시 평의회 권고에 따라 임시 정부 설치(임시 정부 존속 기간은 2년 이내) ④ 각 인종 및 정치 세력들을 대표하는 1차 '로야 지르가'(Loya Jirga·아프가니스탄 전통 부족장 회의) 소집, 헌법 등 상설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작업 시작 ⑤ 2차 '로야 지르가' 회의 소집, 헌법 인준 후 공식 정부 수립 등이다.

33) 아프간전쟁에 동원된 병력 ① 미국 동원전력: 3개 항모단, 특수부대 2만명 이상, 유럽/중동지역 주둔미군 해공군 일부 동원 ② 대테러전 참여국과 전력: 영국(항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 2척, 잠수함 2척, 특수부대 300명), NATO(AWACS 5대), 프랑스(함정 2척, 특수부대), 독일(수송기 2대), 캐나다(함정 3척), 이태리(항공기 8대, 항모 등 함정 4척, 병력 1천명), 호주(함정 5척, 항공기 8대, 1550명), 일본(구축함 3척, 수송기 3대, 지원병력 900명) ③ 탈레반 전력: 병력 4만 5천명(50만 이상 동원가능), 항공기(구소련제 SU-22, MIG-23 등) 250대, 전차/장갑차 650여대, 화포 수백문, 휴대용대공미사일(미스틸거) 100여기 ④ 북부동맹 전력: 병력 2만명, 전차/장갑차 60여대, 항공기 11대 등이다.

둘째, 전쟁방법상의 특징이다. 소화기와 박격포에서부터 스타저 휴대용 미사일까지 동원되고 북부동맹군에 의한 거점공격과 시가지전투, 그리고 게릴라전과 특수부대에 의한 비정규전 및 고도의 심리전 등 온갖 전쟁방법이 망라된 모습이다. 또한 아프간 전쟁은 국지전(local war)이면서도 그 파급효과는 세계적 규모이고 탈레반 정권과 북부동맹군이 벌이는 내전(civil war)인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테러공격의 가능성과 테러 수행능력을 저지하고 위협의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차원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자 정권 전복을 위한 전쟁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전쟁양상면에서의 특징이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했으나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북부동맹군이 미국 B-52 전폭기의 용단폭격 지원아래 전략 요충지인 ‘마자르 이 샤리프’에 이어 13일 수도 카불을 무혈 점령하고 14일에는 칸다하르 입성 등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프간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기 보다 테러 세력과 반테러 세력 간의 전쟁이 됨으로서 이 지구상에 테러가 사라질 때까지 ‘항구적인 자유’ 전쟁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對 테러전의 교훈을 제시했다.³⁴⁾

3) 군사작전상의 특징과 교훈

첫째, 정보, 감시 및 정찰(ISR)능력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미국의 ISR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EP-3E Aries 전자정보 항공기, U-2 고고도

34)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이 얻은 교훈을 8가지로 정리했다. ① 최선의,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방어는 유효한 공격이다. ② 전쟁은 국제 연대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③ 지상군을 포함한 어떤 군사력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④ 전쟁 초기 특수부대 파견을 통한 정확한 폭격 유도 ⑤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원 획득 ⑥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과 원활한 통신수단 확보 ⑦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재정, 정보 등 총체적인 국부(國富)의 활용 ⑧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정보 전달 등이다. Foreign Affairs, 2002. 5·6, 조선일보, 2002. 4. 17일자.

정찰기, RQ-1 Predator 무인기(UAV), 그리고 RQ-4A Global Hawk 고고도 고속 무인기를 운용하거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모든 동원 가능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공격목표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둘째,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이다. 우선 목표를 찾아내는데 새로운 기술 못지 않게 특수부대를 통한 공중과 지상간의 긴밀한 협조가 주효했다. 네바다 주 Nellis 공군기지에 개설된 Joint Firepower Control 과정에서 공지 상호작용(air-ground interaction)을 훈련했으며 공중에서 Warrior 훈련을 일년 동안 실시하였다. 즉 병력은 항공기를 유도하고 지상에 있는 최종 항공 통제관 및 화력 지원장교와 공중의 전방 항공 통제관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통해 표적탐지에서부터 사격통제에 이르기까지 지상군과 공군의 통합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미 육군은 특수부대와 보병 제10산악사단 일부를 작전에 투입했다. 가장 규모가 큰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미 지상군을 보낸 곳은 2개의 해병 원정대였으며 이 부대는 비행장을 확보하고 도주하는 탈레반 병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 육군으로 하여금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다는 개념에 대해 다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전은 각 군의 장점을 이용한 팀 작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들어냈다.

셋째, 장거리 타격이다. 장거리 정밀타격은 세르비아(Serbian) 분쟁시, 표적에 대한 B-52 폭격기 JDAM 타격으로 'Allied Force' 작전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또한 'Enduring Freedom' 작전에서 B-1, B-2 및 B-52 폭격기로 타격을 실시했고 실제로 상당한 물량을 장거리 정밀타격에 추가했다. 무인전투기(UCAV), AC-130U(Spectre Gunship)와 같은 보조 타격 항공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³⁵⁾

결국 아프간 전쟁은 종교적인 신념과 무모한 인명경시 풍조로 오만해진

35) Janes Defense Weekly, 2002. 1. 2, pp. 20-27.

탈레반 정권에 대해 반테러 국제공조로 응징한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쟁으로서 많은 교훈을 남겼다. 전쟁목적면에서 명분의 중요성과 전쟁수단면에서 현대장비와 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초정밀 첨단 무기체계의 중요성 못지 않게 특수전 부대(SOF: Special Operation Force)의 운용과, 심리작전(Psyops: Psychological Operations) 등을 병행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도 아프간 對 테러 응징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금년 연두교서에서 테러를 지원한다고 생각되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분류하고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프간 전쟁의 양상은 장차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으며 전쟁역사는 과학기술의 역사로 발전되어 왔다. 엘빈 토플러의 주장대로 제1물결시대의 농업사회에서는 백병전으로 칼, 창, 활, 방패 등 원시적 전쟁기술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제2물결시대의 산업사회에서는 화약 발명과 더불어 대포, 전차, 원자폭탄 등 대량화력으로 무차별 대량과파 및 살육전을 자행했으며, 제3물결시대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하이테크 전쟁으로서 정밀유도무기로 실시간대의 정보획득 처리 및 타격이 가능하며, 그 범위도 우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의 양상은 정보전쟁, 미사일 전쟁, 무인정찰 수단을 포함한 로봇전쟁, 그리고 지식, 정보 네트워크의 개발 및 발전으로 통합입체전 양상의 4차원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단일패권을 꿈꾸는 미국은 지난해 5월,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선언하고 200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알래

스카 포트 그릴리에 장거리 요격미사일 지하 격납고 6개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1998년 린스펠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한 2005년보다 앞선다. 북·미 특사교환의 분위기는 6·29 서해교전으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북·미간의 핵·미사일 협상이 진전돼 2003년경에 예상되는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전쟁 양상에 관한 특징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도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전쟁은 정치적 목적과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계속 양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전쟁양상에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군사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장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NLL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에는 유엔군의 한국전쟁 정전기능을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한·미 군사동맹에 의한 연합방위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북한의 명분 없는 주장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전쟁이 주는 교훈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배합하고 반외세 투쟁과 게릴라전술을 병행하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노려 전면전으로 공산화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혁명전쟁 양상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 방법을 선호하고 대남전략에 준용하고 있다.

걸프전쟁에서는 첨단 과학병기의 위력을 여실히 들어내 보인 전쟁이다. 이라크가 자랑해 오던 15만 정예 수비대의 충성심도 촘촘히 짜여진 바그다드 방공망도 토마호크 미사일과 스텔스 전폭기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코소보 전쟁은 반인권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전범재판소에 세우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다. 사상 최초로 지상군 투입 없이 공군력만으로

승리한 기록을 세웠으며 대규모 나토군이 유럽에서 합동작전을 펼친 기록도 세웠다.

21세기 첫 대규모 전쟁이 아프간 전쟁은 반문명적 테러에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이루고 집단안보체제로 응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테러 전쟁의 명분은 과거의 이념적 차이나 현재의 국가이익 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결국 현대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갈등의 군사적 해결이라는 전쟁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전쟁수행 수단의 변화는 그 시대의 과학기술과 국력에 따라 변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정당성 없는 전쟁은 국제사회로부터 집단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전쟁수행 수단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국가 안보적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K C I